

企劃特輯 시연칼럼

# 을사오적乙巳五賊 권중현權重顯의 삶과 숭모정신崇慕精神



시연施連 권오신  
대종회종보평집위원회 위원장, 칼럼니스트

## 운곡서원雲谷書院과 경농經農

정조 8년(1784, 甲辰) 경주 향중동에서 가진 논의에 따라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 시조(始祖太師)를 중존위(中尊位)로, 종민공(忠愍公 / 竹林 / 謂山海)과 귀봉(龜峯, 謂德隣)공(公)을 동서벽에 배향하는 운곡서원(雲谷書院, 追遠祠)을 창건하고 그다음 해에 봉안례(奉安禮)를 가졌다.

경주의 후손들이 열심히 지켰지만 운곡서원은 고종 5년(1868, 무진)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넘지 못했다. 서원이 훼철(毀撤)되었을 때도 후손들은 위판(位版, 위파)을 동산에 묻고 사당(祠堂)이 있었던 자리엔 제단(祭壇, 고종 28년 1891) 만들어 향사(享祀)를 받들었다.

훼철(毀撤) 36년만인 광무(光武) 7년 계묘년(1903) 단선(壇壝)을 새로 쌓았다.

당시 경농(經農)이 쓴 추원사(追遠祠) 단소상향죽문(壇所常享祝文)은 명문장에 다 위선(爲先) 정신이 절절이 담겨있다.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읊겠다.

### 아! 빛나신 태사공이시여.

<베푸신 덕(德)이 널리 빛났습니다.

권씨(權氏) 성(姓)을 처음 받으시고 안동이 식읍(食邑)이었습니다.

높이 우러러 사모(思慕)하여 운곡의 남쪽에 웅장한 사당을 지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의 두 자손 죽림(竹林)과 귀봉(龜峯)은 유림(儒林)에서 으뜸으로 삼고 있는 사대부이며

죽림(竹林)공은 충절(忠節)로 표창되고 귀봉(龜峯)은 도학(道學)으로 추앙(推仰)됩니다.

이미 조상의 제사를 높이고 두 자손을 배향(配享)하였습니다.

엄숙한 가범(家範)에 예절바른 태도가

질서(秩序) 정연(整然)합니다.

운(運)이 나빠 한때 사당을 거두었으나 모두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에 단을 모아 사립(士林)을 위안(慰安)하고 경건(敬虔)히 예(禮)를 드리니 고금(古今)에 없던 일입니다. 신령께서 감동(感動)하고 통(通)하셔서 먼 잔을 흡향(飲饗)하소서.)

-권중현 지음-

경농(經農) 선대(先代)와 운곡서원의 인연은 서원을 둘러싼 용추(龍湫)처럼 깊고 깊다. 경남 양산 통도사(通度寺)와 경주 불국사(佛國寺) 승려들이 폐사지의 흔적을 근거로 경주군(慶州郡) 형리와 짜고 별인 송사로 인해 당시 운곡서원 수호 유사가 얹울한 옥살이를 했었다.

1900년 양산 통도사 승려(古山)와 불국사 승려(景鶴, 定致)가 합세, 유사(權宜一, 34세, 葛山公의 증손)로부터 사찰 부지 값으로 1,300냥을 끌어내고 서원 땅을 빼으려 했었다.

당시 사찰 측과 가까웠던 경주군수(慶州郡守) 김윤란(金允蘭)이 유사(權宜一)를 구속시키면서 전국의 종중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참관 권응구(權應圭)공과 친정 권재형(權在衡, 經農 선대의 초명)공이 나서 단유골변(壇 墓碑, 무덤이나 단을 파내는 극악한 행위) 사건을 항의하는 정단(呈單, 서류를 만들어 관에 제출)을 내무부에 보냈다.

광무 6년(1902) 8월 이 정단을 받아 본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는 그 즉시 경북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사건을 재조사 시켰다. 경북 관찰사 조기하(趙基夏)는 이번석(李範錫) 영천군수(永川郡守)를 보내어서 사실을 파악, 경주군(慶州郡) 형리(김상구)와 승려 경호를 구속하는 등 승려와 경주군 관리가 짜고 조작했던 사건을 바로 잡았다. 승려 치정과 고산은 도망쳤다.

학운유지운임계鶴翁遺志雲仍繼 학산옹의 남긴 뜻을 자손들이 이으니

완재정고좌반구完在亭高坐伴鶴 완재정 높은 곳에 앉아서 갈매기를 짜하네.

<국역國譯 학산실기鶴山實記에서>

경농(經農) 선대가 남긴 주옥같은 칠언시

七言詩다.

일제강점기엔 그의 한시(漢詩)를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시(詩)를 학산실기(鶴山實記) 남기게 된 인연 역시 그의 숭모(崇慕) 정신에서 비롯된다.

이 송사를 바로 잡기까지는 대한제국(大韓帝國) 군부대신(軍部大臣) 서리로 내각에 있었던 권중현(權重顯) 선대(先代)의 판단이 내부대신(내부大臣) 이건하(李乾夏)를 움직였다. <자료출처: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에 예절바른 태도가



## 완재정宛在亭과 경농經農

양아일지산진두陽也一池山盡頭 양지의 한 뜻이 산이 다른 머리에 있으니

장래십수가용단丈來深水可容舟 한 길 이상 깊은 물에 배를 용납할만하네

오서역참여지승五嶼亦參輿地勝 多섯 개의 섬이 또한 여지승(輿地勝)에 실려 있으니

천주병렬사가류千秋并列史家流 천주에 아울러 사가의 분류에 나열되어 있네.

수죽청풍첨원곽脩竹清風瞻遠郭 긴 대나무 맑은 바람은 면 성과를 보고

창가백로소중주蒼葭白露瀨中洲 푸른 갈대 흰 이슬(시경詩經 진풍秦風)에 나온다. 겸가兼葭가 창창蒼蒼하니 백로白露가

양)에서 살게 된 학산공(鶴山公)의 높은 학문과 행장에서 시작된다.

학산공은 시조 태사공의 23세손, 파조 복야공(僕射公)의 14세손, 그리고 감정공의 후손이며 승사랑공(鶴諱 추鍾)의 아드님이시다. 호(號)는 학산(鶴山), 자는 요경(了經), 휘(諱)는 삼변(三變)이시며 선조 10년(1577, 丁丑) 산청(山淸) 단성(丹城) 고을 도산리에서 태어나셨다.

여섯 살 때 부친을 여의고 어떻게나 슬피 울었던지 문상 손님들의 가슴을 쪘셨다고 한다. 이때부터 헤어머니를 모셨다.

밀양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당숙(堂叔, 직장공直長公, 휘(諱) 치鑑)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산청(山淸)에서 밀양으로 우거(寓居)해 살다 선조(宣祖) 25년(1592) 임



서리가 되었다)은 중간에 있는 섬을 거스르네.

학운유지운임계鶴翁遺志雲仍繼 학산옹의 남긴 뜻을 자손들이 이으니

완재정고좌반구完在亭高坐伴鶴 완재정 높은 곳에 앉아서 갈매기를 짜하네.

<국역國譯 학산실기鶴山實記에서>

경농(經農) 선대가 남긴 주옥같은 칠언시

七言詩다.

일제강점기엔 그의 한시(漢詩)를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시(詩)를 학산실기(鶴山實記) 남기게 된 인연 역시 그의 숭모(崇慕) 정신에서 비롯된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끝난 선조 37년 사신을 따라 밀양으로 돌아오셨으나 어머니에게는 효(孝)를 다하지 못했음을, 또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속죄(贖罪)

진왜란을 맞은 학산공은 밀양현(密陽縣) 백성들을 모아 의병(義兵) 활동을 벌이다 왜적에게 잡혔다.

왜군에게 잡힌 어머니를 구하고 포로가 됐다. 열여섯 살이었다.

학산공은 수은(睡隱) 강함(姜沆, 1567~1618 조선 중기의 문신, 의병장)과 백수회(白水繪, 조선 중기의 문신 저서로 송담집(宋潭集)이 있음), 정호인(鄭好仁, 양산 출신 의병장) 등 거유(巨儒)들과 일본에 끌려가서 1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셨지만 조선인의 기개를 놓지 않았으셨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끝난 선조 37년 사신을 따라 밀양으로 돌아오셨으나 어머니에게는 효(孝)를 다하지 못했음을, 또 백

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속죄(贖罪)

일념에서 벼슬길을 포기하셨다.

학산공이 은둔했던 시기에서 3대를 더 내려가 밀양 부북면에 조성된 위암못 가운데에 완재정(完在亭)이 지어졌다. 초록(草屋) 형태였지만 이 정자(亭子) 소유권을 두고 이웃 합평이씨(咸平李氏) 집성촌과 대한제국까지 시비가 붙는다.

어느 시기는 합평이씨(咸平李氏) 소유가 되었다가 다시 학산공 후손이 찾아오는 일이 되풀이됐다. 완재정(完在亭) 시비 역시 당시 군부대신(軍部大臣)이었던 경농(經農) 선대로 인해 시비가 가려졌다. 1890년대 말로 추정된다.

밀양 관아에 인맥이 두터웠던 합평이씨(咸平李氏)들의 제소로 1심 격인 밀양현 재판에서 완재정(完在亭)의 소유권을 빼앗겼다. 합평이씨에게는 밀양에 인맥이 두터웠던 합평이씨(咸平李氏)들이 제소로 1심 격인 밀양현 재판에서 완재정(完在亭)의 소유권을 빼앗겼다.

아 사실을 알게 된 경농(經農) 선대는 진주목(晉州牧)에서 2심을 갖도록 해서 합평이씨(咸平李氏) 문중으로 넘어간 완재정(完在亭)의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켰다.

학산공 후손들은 1900년대 초 완재정(完在亭)을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重創)하고 경농(經農) 등 영남(嶺南)의 유림(儒林)과 문인들로부터 시(詩)와 글을 받아 걸었다.

완재정은 경상남도(慶尚南道) 중요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조선말의 고건축 양식을 지닌 중요한 문화재가 됐다. <증언證言: 학산공鶴山公 12대 주손胄孫 권기덕權奇德 / 대구대학교대학원장, 전국교수협회 회장, 종사연구위원회 고문(宗史研究委員會顧問)>

경농(經農)은 암살단의 표적이 되는 등 위기와 시련을 겪었지만 천수(天壽)를 누렸다. 한일합병 이후로는 실직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넘기고 서재(書齋)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져 시(詩)와 문문(韻文)을 짓고 고전을 읽는 데 시간을 썼다.

이때 지어진 책 3권이 목판본(功過神諭解)로 알려졌다.

이 책엔 <과편(過編)은 배반하고 공편(功編)으로 회정, 온전한 선인(仙人)이 되어 하늘이 내리는 복록을 편히 누리도록 함에 있다>는 서문(序文)이 실려 있다.

이 서문(序文)을 꼼꼼히 살펴보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느끼고 권력무상에 몸부림을 쳤을 시기로 추정될 뿐이다. 1906년 간행설도 있다. <권선진약(勸善懲惡)을 주제로 한 글로 공격(功格)과 과율(過律)의 조목에 따라 해설 형식으로 써진 한글본(諺解本)도 있어 흥미롭다.

1934년 세수 81살에 영화와 고난이 되풀이됐던 생을 놓았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동 사양단斜陽

塔 산려 자좌(子坐, 정남향)에 묘소를 냈으나 현재 공의 묘소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안산의 개발 붐을 타고 묘소가 썬 산 전체가 거액을 받고 팔았다는 설이 있다.

정부인(貞夫人)이신 원주원씨(原州元氏, 부인 현감 결혼) 사이에서 철종 4년(1952) 딸을 두었으나 31살에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영동군 영동을 당곡리 당곡당을 산다.

재배이신 중주원의관(中樞院議官 휘 謂 창윤昌潤)의 딸이었던 정부인(貞夫人)이(경주최씨慶州崔氏) 사이에서도 딸 넷

만 두어서 형(中建重建)의 아들(태환泰煥)을 양자로 들었다. 정부인(貞夫人)은 경주최씨(慶州崔氏) 39살(1909) 때 돌아가셨다. 고종 13년(1876)에 태환(泰煥)은 내무주사와 경상도(慶尚道) 연일군수(延日郡守)를 지냈으며 1947년 72살에 죽었다.

권중현(權重顯)의 가까운 친척과 이완용(李完用) 내각(內閣)의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제순(朴齊純, 1858~1916)과도 사돈을 맺어 탄탄한 정치세력을 형성했다는 설이나 후손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60년 국내 한 잡지가 조선귀족(貴族) 후손들의 근황에 대한 취재 중 그의 손자가 고미술협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 더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후손들이 소장한 경농(經農)의 자료만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종회(大宗會)에서라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실손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다.

능동실기(陵洞實記)를 짓고 안동김씨(安東金氏)들에 의해 제기됐던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 위자(位次) 바로잡기, 화재로 불타버린 능동재사(陵洞齋舍) 중창(1899년 완공) 지원, 운곡서원(雲谷書院)과 완재정(完在亭) 등 그가 남긴 죽적이 널리 있으나 시가집(詩集), 문집(文集) 등 많은 사료들이 1945년 이후의 역사적 그늘로 인해 사라지고 찾지 못할 뿐이다.

학문이나 미래를 보는 눈이 뛰어났던 경농(經農)은 친일(親日)이 아니라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나라를 지켜 내었다면 정승(政承)의 반열에 올라 안동권문(安東權門)을 빛내었을 선대(先代)이었을 것이다.

고조부 권수역(權壽億) / 증조부 권기(權紀) 조부 권경호(1795~1834) 생원시 합격 부·권홍석(權弘燮) 1833~1861 무과급제 아들 권태환(1876~1947, 경북 연일군수)과 6명의 손자를 두었다.

<자료출처: 능동실기(陵洞實記), 안동권씨대동보(安東權氏大同譜),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학산실기(